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4주일
제36권 15호(다해) 2016년 3월6일

[묵상]



< 되찾은 아들 >

아버지께 돌아가자!

주인공은 바로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두 아들 모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고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라도 훌훌 털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큰 아들처럼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오만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도록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사순절을 보다 뜻있게 보낼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으로 초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일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패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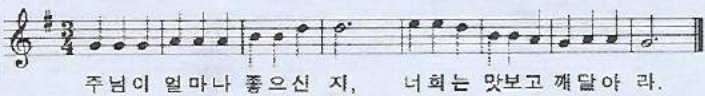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이강엽 바오로, 오창섭 (생) 서성용 베드로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홍주희 안나 & 유우학페 안나, 이강엽 바오로,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기범 베드로, 이종수 마틴, 박미자 비비안나, 연옥영혼, 현시영 요셉, 노정순 베로니카 (생) 서성용 베드로, 황윤제 베드로 가정, 박정미 클라라, 변숙희 텃다& 김태은 비비안나, 오은준 세실리아, 주조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여호수아기(Joshua)5,9.10-12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맞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제 2독서 코린도 2서(Corinthians) 5,17-21

복음 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루카 (Luke) 15,1-3.11-32

영성제송 아들이,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3. 신자들의 생활

3-2. 신앙과 사회의식

신자들은 박해 때에도 어려운 이웃과 부모 잃은 어린이를 힘써 돌보았다. 또한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써 대세(代洗)를 주어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1852년 이래 성영회(聖會)를 조직하여 고아들을 위탁 양육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선의 중요함을 터득한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자였다. 초기의 신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도 작용하였다.

4. 박해의 원인과 순교의 의미

4-1. 박해의 원인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진 이후 100여 년 동안은 박해 시대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물론 박해와 박해 사이에는 일종의 휴지기도 있었지만, 박해를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 조선 왕조의 정부에서 단행한 천주교 박해의 원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해의 원인을 정치와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왕조는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받들던 사회다. 당시 성리학은 정치 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구실까지 하고 있었다. 성리학적 사상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것은 집권층의 주요 임무였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에는 성리학이 여러 방면에 걸쳐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는 집권층의 정치 사상과 통치 능력이 부인되고 있다는 말도 되는데, 당시 집권층은 이런 현상에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각종 사회원리를 부인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펴 나가고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부인하였으며, 당시 사회 풍습과는 달리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마저 일종의 미신 행위로 간주하며 조상 제사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였다. 이는 조상 제사로 상징되던 일체의 구체도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여, 당시의 집권자들은 천주교가 성행하면 양반들이 존중하는 유교가 무너지고, 양반의 권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오늘의 성가

< 계속 >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6	156	149
봉헌	261	261	268
성체	303	303	303
파견	103	103	103

"하느님과 화해 하십시오"

천을 찢거나 바느질을 하는 데 쓰이는 실은 꼬이거나 매듭이 생기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더구나 실타래가 엉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삶의 실타래가 꼬이고, 심하면 매듭이 생겨 상처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자리한 이 꼬임과 매듭을 풀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누군가를 떠올리는 일은 그 자체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저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는 앞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동안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길,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자비의 얼굴', 17항)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고해성사를 통해 체험한 하느님의 깊은 자비를 모든 신앙인이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 체험이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의 도구가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음을 깨달아 우리도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라."('자비의 얼굴', 14항)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일깨워 주

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상속을 요구하여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의 잘못된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또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던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그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제나저제나 매일 집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초라한 모습임에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이처럼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코린 5,20)라고 권고합니다. 그 동안 하느님을 잊고 외면했던 우리에게 하느님은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사표'는 당신 자비를 체험하라는 하느님의 소중한 '초청장'입니다. 이제 자비로운 사랑의 하느님과 화해를 체험하고 그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데레사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11/16 (금)- 소공동체
 3/18/16 (금)- 본당 꾸리아
 3/25/16(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17일(목요일)
 ● 참회예절 : 7시(저녁미사 없음)
 ● 고백성사 : 7시 30분 시작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 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
 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24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8일(화), 9일(수), 15일(화), 17일(목)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3월27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0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부장 ☎(310)625-3312
- ◆요셉회 모임변경
 ● 일시: 3월 13일 (주일)
 ● 장소: 친교장
 ● 셋째 주는 본당 행사 관계로 모임을 두 번째주로 임시
 변경하였습니다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시: 3월 4일 (금) ~ 6일(주일)에 돌아옵니다.
 ● 장소: St Anne Retreat Center
 30480 Fredalba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 초등부
 March 6: 4th,5th grade
 March 13: 2nd grade
 March 20: 3rd grade
 ● F.I.G.S. Jr & F.I.G.S. : 3/4 - 3/6 (사순 피정중)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선착순 30명
 ● 일시: 7월 29일 (금) - 7월 31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환불 불가능)
 ● 신청기간: 3월6일 (오늘주일까지)
 ● 문의: 김낙기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 3월13일(주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13일(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 하는 셈입니다.
 (미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6일 * 소공동체 : 김밥 (\$4), 사발면(\$2)
 * 주일학교 : 무수비 (5학년)
 ● 3월 13일 *토동 2,3반 : 짜장밥 (\$3)
 * 주일학교 :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강숙경	구자운	금동균	김관기	김선영	성전헌금	장미순	강숙경	구자운	금동균	김관기	김영덕
	김여순	김영덕	김원모	김인성	김찬구	김창규		김원모	김찬구	박완철	박정희	서영주	안재만
	박영희	박완철	박정희	박종열	반정이	서영주		양영관	오세원	유선식	이경수	이근태	이형삼
	성미선	신현화	안재만	양영관	오세원	오일순		정혜영	최진수	최태훈	황인종		
	유선식	육근주	이경수	이근태	이형삼	정혜영							
	조소영	최진수	최태훈	홍석인	황인종								
합계:\$4,450						합계 : \$2,290							
주일미사헌금 :\$2,429						주일학교\$1,720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시험
일시 : 3월 20일 (주일) 오후 1시30분~3시
장소 : 강당
2. 백삼위 한국학교 단어경시대회
일시 : 3월 27일 (주일) - 각 반별로 진행
3.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I, II)
일시 : 4월 16일 토요일
4. 제 2 차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일시 : 4월 23일 (토) 오후 2시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에 콘을 설치합니다. 아이들을 픽업하실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하신 후 아이들을 데리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 ☎(909)576-5773, (562)292-8999

◆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정기공연과 음악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각2명(오디션있음, 지정곡, 희망곡)
연출담당: 1~2명
- 자격 :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일정 : 매년 정기공연(6월 초)과 음악 피정예정
- 지도 :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최대제 로베르토신부
- 신청: jusawill122@gmail.com

◆ 제 16차 ‘청실홍실’ 행사안내

- 시간: 2016년 3월13일(주일) 오후5시
- 장소: 옥스포드호텔(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자녀만, 동반)
- 회비: \$100(두사람 \$150, 세사람\$200)
- 문의:714-530-3111

노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991-4838 3/19(토) 오후 5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신종철 아브라함781-0787 3/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560-7120 3/13 (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종수,정에 490-9662 3/19(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이재호 펠릭스 909-557-7490 3/12 (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크리스티나 (레지나) 3/11(금)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길’로 대체 3/18(금)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테레사 634-6923 3/8(화)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은진 겐마214-2290 3/12(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이복임 엘리사벳 3/14(월) 오후 7시,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12(토) 오후 7시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유현화 리디아541-4305 3/12(토)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793-6157 3/12(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릿다 890.-1778 3/13 (일) 오후2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십자가의 길 3/12 (금)오후 7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모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응답하라 나의 추억

모처럼 모임에 갔더니 드라마 '응팔' 이야기가 꽃을 피운다. 다시 보기로 몇 회 연결된 방송을 보느라 잠을 설쳤다는 친구, '응팔'이 끝나니 살맛이 안 난다는 친구까지 모두 공감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에 이처럼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각박한 현실에서는 더욱 인정과 관심이 소중하다. 사는 것이 힘들고 녹록지 않으니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고 가족과 이웃이 끈끈한 정으로 함께 뒹굴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향수가 생긴 것이다. 매회 반전과 감동이 있어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응팔'을 보면서 나도 학창시절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본다.

항상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기질이 있던 나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침잠이 많은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조기 청소를 했으니 책임감이란 대단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입구가 높고 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남산공원을 청소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며 즐거워했다.

저녁이면 세계의 명언들을 찾아 일일이 손 글씨로 적고 예쁘게 꾸며서 학교 화장실에 붙였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등, 불일을 보는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읽고 힘을 내게 하자는 의도였으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요?

학교에 가는 길목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거리에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도 친구와 함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매주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봉사의 참 기쁨을 느낀 친구들과 서로 화합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시절이 아름답게 기억된다.

'응답하라 1988'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얻는 기쁨으로 우리를 감동케 한다면 나의 학창시절은 이웃을 가슴 뜨겁게 사랑한 추억이 있기에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선물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상대를 사고 싶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봉사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정재분 아가다 / 동시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전대사를 받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새로 봐야 하나요?

☞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을 수 있고 고해신부가 부여한 보속이 죄에 비례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보속이 적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겁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 허용되지만 한 번의 고해성사로써 8일간 전대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큰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교회는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조건을 실천함에 사랑과 정성이 깃들기를 청합니다. 죄악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는 의미의 고해성사와 성체를 모시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필수인 것이지요. 진정한 영적 회개만이 우리를 고쳐줍니다. 주님의 자비를 달게 합니다. 주님처럼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사랑을 살게 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을 위해서,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얻는다는 의미만으론 주님께 너무 송구한 행위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하느님의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해소를 찾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전대사는 보속되지 못한 감별을 면제받고 영혼이 정화되는 은총의 작업임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고해성사가 신앙생활의 짐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깊고 '따순' 주님의 엄청난 자비의 열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지금 여기]

여물게 살아낸 날들

비가 온 날도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눈도 내렸습니다.
흐리고 바람 사나운 날도 많았습니다.
비 오다 그치고 해 났다 다시 비 내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살았더니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지났습니다.
내일 날씨는 모르겠지만 또 잘 살아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혜로운 솔로몬 왕

다윗 임금은 자신이 죽인 부하 우리야의 부인 밋 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어느날 다윗 임금은 밋 세바에게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그대로 하겠소.”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임금의 명령에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려 지혜와 부귀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1,1-2,12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제사를 드리러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에 갔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천 마리씩 바치곤 하였습니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청했는데 그것이 하느님 보시에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3,1-15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같은 집의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실수로 죽이는 바람에 다른 여종이 잠자는 사이, 그 아들을 데려다 자기 아들이라 우긴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어떤 결정을 내려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상3,16-28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다윗 임금 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싸움보다는 오히려 대화로 모든 것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차지하면서도, 우상숭배로 인해 왕국 분열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부인을 받아들였고 궁 안에서도 많은 우상숭배가 널리 퍼져나가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은 성공한 후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하고 의롭고()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까지 주셨습니다.”(1열왕 3,6)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와()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을 지키면 네()도 늘려 주겠다.”(1열왕 3,13-14)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하느님의 자비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경계선에서 멈춘다고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 에디트슈타인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돌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양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빌)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파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술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테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O99659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